

사설

한·일 불교의 양심적 교류

해방 이후 한·일 사이의 갈등은 여러차례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시정되지 않는 가운데 특히 최근 일본 지도층에서는 과거 식민지 통치에 대한 망언이 연달아 나왔다.

10월 30일부터 3일간 경주에서 한·일 불교문화교류 16차 대회가 열렸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인권, 평화, 상호이해 등 거창한 주제로 진행돼 왔으나 주최측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불교도의 만남이 실질적으로 한 일간의 갈등 해소에는 기대하는 만큼 도움이 되지 못해 왔다는 의견이다.

대회 때마다 서로간에 진지한 토론은 그때뿐이고, 회의가 끝나면 숙된 말로 '도아미타불'이 돼왔던 것이 그동안의 실정이다. 회의 표제가 거창할수록 보다 빨리 그 여운을 허공에 흩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일본인은 불교도이며 한국도 인구의 반이 불교도이다. 만일 한 일 불교도가 진지하게 한 일간의 갈등해소에 노력을 해왔다면 한 일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일·일한 불교문화교류대회는 양국간을 오가며 15회나 대회를 열어왔으나 그 내용이 너무나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공염불(空念佛)'이 되고 말았던 게 아닌가 싶다.

같은 불교, 같은 경전을 가지면서도 한국·일본 불교의 내용은 크게 다르다. 이 흐름을 인식하지 않은 채 '불교' 또는 '불자'라는 공통적인 명칭만을 믿고 토론을 거듭한다면 진정한 뜻은 전하지 못할 것이다.

6세기 중엽 백제에서 일본에 건너간 불교가 효시가 되어 널리 보급되었으나 중세 이후 일본에서는 조사신앙(祖師信仰) 불교종파를 창시한 고승 개인에 대한 신앙이 되고, 특히 근세 에도(江戶) 막부의 종교정책으로 사원은 말단 행정기관이 되고 말았다. 때문에 일본불교는 두드러지게 세속화되고 체제에 순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무렵 한국불교는 탄압을 받았으며 선(禪)과 수도를 주류로 삼았다. 어떤 시점에서 보면 한국불교와 일본

불교의 차이는 불교와 기독교만큼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불교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대승적으로 상호간에 보편적인 정신기반을 구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한·일 양 민족사이의 갈등은 한국인의 입장, 또는 일본인의 입장에서 해결방법을 거론할 때에는 항상 같은 말이 되풀이 밖에 없으며 그 패턴을 벗어날 수도 없다. 피해를 입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일본인에게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류적 차원에서 일체의 민행에 대한 반성을 촉구해야 하고, 또 일본측에서는 일본이 아닌 인류적 차원에서 과거에 대한 성찰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세계와 인류의 양심으로 한 일간의 과거와 미래가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의 주제 '세계 종교 갈등과 불교의 평화노력'의 논의에 앞서 '한·일 불교관의 갈등'의 해소를 생각해야 할 것이며, 불교도의 양심으로서 한 일간의 미래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불교를 포함한 모든 고등종교는 그 진면목을 보편성에 두며 인류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개별민족과 국민차원의 번영이 아니라 인류·세계 전체를 위하는 것이다. '보살의 아픔은 중생에 대한 대비의 마음'(유미경)은 바로 인류(중생)에 대한 대비이다. 불교는 그런 뜻에서 인류적 차원의 양심이기도 하다.

전세계의 고등종교는 K.아스퍼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추측시대에 거의 동시적으로 형성되었다. 저마다 문명권에 있어서의 문화적 전통은 다르나 한결같이 그 사회의 양심을 강조한 것이다.

세계적 위기상황을 통감하는 시점, 여러 인류는 새로운 정신혁명(추측시대)을 맞이했으며 불교가 국경·종파를 초월하여 공동의 양심에 자각되어야 할 것이다. 한·일 불교에 있어서 그 길은 먼 곳에 있지 않으며 바로 이웃하는 민족·나라를 인류적 양심으로 조명하는 일이다.

열린 마당

불교의 정치윤리

지도자의 덕목 - 정천구 <인천대 교수>

불교에서의 정치윤리는 한마디로 반야지혜를 덕목으로 들고 있다. 경전을 통해서 정치자에게 강조했던 것을 종합하면 지식보다 해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철학자이며 정치학자인 막스 베버가 지도자의 덕목으로

이 없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해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불자들에게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자비·지혜로운 통찰력 우선

정열, 통찰력 가운데 통찰력이 반야지혜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지도자는 자비, 중도, 평등, 평화 정신에 입각하여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자비의 '통치차원의 비자급'이란 관행은 지도자로서 해야

한국의 정치상황으로 볼 때 불자들의 정치의식이 요구된다 하겠다. 국민의 대다수가 불자인 상황에서 단지 불자라는 이유만으로 검증없이 편견 행사를 잘못했을 때의 결과는 엄청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통치권자의 비자급 과업을 계기로 우리 정치에 있어서 정 의의식과 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특히 대외적으로 북한, 일본,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어려운 이 시기에 국내문제를 빨리 해결해야만이 국제적으로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경전에 나타난 지도자의 길

"왕이란 백성의 부모여서 도리에 의거해 사람들을 거두어 보호하여 평안케 해주는 까닭에 왕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니건자경>에 나오는 이 말은 불교에서 훌륭한 지도자와 올바른 정치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 부처님은 왕의 지위로 백성을 억압하는 프 라세나왕에게 이렇게 일깨웠다. "대왕이시여, 오직 외아들을 사랑하듯, 백성을 사랑하십시오. 억압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며 악덕을 제어하고 바르지 못한 가르침을 버리고 바른길을 가시오. 타인의 불행행에 자신의 행복을 쌓아서는 안됩니다. 괴로운 자를 돕고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초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불교는 통치자의 자질과 성품에 대한 자격을 엄격히 제시하고 있다. <수호국계주경>에서는 제왕이란 탐욕과 사치스러움이 없어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니건자경>은 오직 제왕의 이익을 꾀한다면, 재물을 받고 치도(治道)를 굽힌다면, 백성을 속여 나

라를 어렵게 만드는 제왕을 국가 최대의 악한 도둑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경전이나 문헌에도 있듯이 왕이란 제왕이 아니라 그의 제도하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권리와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포함한 국가의 안녕과 백성을 위한 도덕적 지배자를 뜻한다. (우)

백성을 외아들 사랑하듯...

로 민본에 있다. 이를 위해 불교는 통일과 평등을 중요시하며, 유심론의 입장에서 자유주의를 고수한다. 그래서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국왕에 의한 수탈, 측근들의 횡포, 부패관료들의 횡포, 도둑의 날뛰, 외부의 침략 등 다섯가지 공포를 없애는

백성을 속여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제왕을 국가 최대의 악한 도둑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경전이나 문헌에도 있듯이 왕이란 제왕이 아니라 그의 제도하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권리와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포함한 국가의 안녕과 백성을 위한 도덕적 지배자를 뜻한다. (우)

아쇼카왕 <중인도 마가다국>

관리들 준법정신 강조

법을 실천하고 증명시키기 위해 일반 대중들에 대한 도덕적인 교화에 힘썼으며, 인도사상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다. 국내 각지로 법의 순행을 하고 그 지방의 주민들에게 법을 가르쳤으며 법대관을 설치해 모든 사람들이 평등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든 백성을 친자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특히 아쇼카왕은 "관리들은 모두 법에 따라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고 범법하기 쉬운 자들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호, 법에 의한 처리, 법에 의해 인락을 주는 것, 이것이 관리가 준수해야 할 규칙이기 때문이다"라며 호르타지쉬운 공무원들의 준법정신을 일깨우곤 했다.

지룬왕 <동인도 최조리국>

덕으로 다스린 평등 왕

착하게 세상을 다스려 불법을 널리 선양했으며 공정하고 덕있는 선정을 펴 만 백성을 편안케 한 임금. 그는 "이 국토에 사는 온갖 백성들은 언제나 밝은 법률에 의해 잘 다스려져야 한다. 굶주린 자는 구제되고 가난한 자는 동정을 받으며 국민이 죄를 지을 때는 공평히 판결받아 억울함이 없게 하라"고 항상 일했다. 이에 도둑이 없어지고 백성들은 안락을 누렸으며 국민들은 제 부모처럼 임금을 공경했고, 모두 평등왕이라 불렸다. 왕은 대전 앞에 누각을 짓고 큰 종을 주조해 걸어 소송할 것이 있는 자로 하여금 누각에 올라가 그 종을 치게 해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는 등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백성의 소리가 된 잠복자 왕

시론
盧씨도 불자라는데...

살얼음이 얼었다. 때 아닌 천둥 폭풍 불더니 내뿜 수북한 마당 한켠 비수처럼 얼음이 돌아나 더욱 춥게 한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시때때로 그림자를 바꾸는 숲은 예기치 않은 변화에 감기를 앓은 듯 수척하다. 세상이 늘 기계적 예측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지만, 변덕 많은 날씨를 탓하기엔 너무 수상쩍다. 사람들은 이 한 때를 무엇인가 쌓으며 보낸다. 일곱을 거두고 팔감을 준비하고 두툼한 옷도 꺼내 입는다.

숲은 비워냄으로써 겨울을 준비한다. 가지 끝 나뭇잎 하나 마저도 바람에 실려 보내고 온 몸이 가득한 수분도 다시 땅으로 내려 보내 단단한 줄기만 겨울 바람에 드러낸 채 추위를 견디는 것이다.

쌍아들의 겨우살이와 비위들의 겨우살이의 차이가 섭리처럼 대비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불행히도 올 겨울은 차분한 겨울 준비의 미덕도 자연스럽지 않다. 나라의 안팎이 온통 전직 대통령이 부정하게 끌어모은 재물의 축재로 들끓고 있다.

한때나마 우리의 최고의 수장으로 모셨던 사람의 어이없는 행각은 분노를 넘어서 말문을 막히게 한다.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스스로 불자임을 자처했고, 대선에서도 불교도의 막대한 지지속에 최고의 권좌에 오른 인물이어서 우리의 배신감은 더욱 크다. 불교수도의 최고 덕목이 보시의 실천에 있음은 다시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그는 검은 돈을 끌어 모으기에 바빴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너무나 인색했다. 그가 교계의 복지단체에 성금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더구나 기막힌 일은 어떤 종교의 복지원에 매달 1천원을 성금을 냈다는 기사를 보면 인면수심의 두 얼굴을 보는 듯하여 이연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벽은 이러한 정치적 흥정이나 거래일 것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자신의 힘으로 역사의 부정적 퇴적물을 한번도 걸러내 보지 못했다. 민족 공동의 명제나 이익에 앞서 힘있는 자의 정파적 이해나 지역적 종교적 편견에 의해 이러한 선택이 강요되어 온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들에게 부끄러운 하나 없이 또 권력을 주지 않았던가. 이러한 판단 또한 우리의 부족하고 무지한 소치는 아니던가. 우리 또한 돈의 물신에 권력의 맹신에 양심을 저버리고 지조를 팔아먹은 것은 아닌가.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허물어지지 않는 양심을 추구하고 의지할 언덕이 없다는데 있는지도 모르겠다.

업보사슬 벗는 참회

고서의 책 갈피속에서 묻혀진 허유(許由)와 소부(巢父)의 고사에서 허물어진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다. 허유가 요(堯) 임금으로부터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허유는 귀가 더럽혀졌다면서 영천(潁川)으로 달려가 귀를 씻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멀리서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때마침 소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소를 몰고 영천으로 온 소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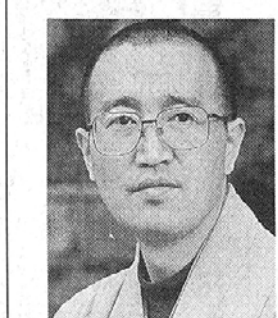
소부는 허유에게 물었다. "냇가에 와서 귀를 씻고 있구려. 대체 무슨 일이지?"

"글쎄, 내게 임금의 자리를 준다지 않소. 그래, 그런 말을 들어 내 귀가 더럽혀졌으니 이렇게 씻고 있는 거라오."

이렇게 대답한 허유는 돌아서 기산(箕山)으로 들어가 버렸다. 소부는 막 물을 먹으려던 소의 머리를 잡아 들렸다.

"더러운 말을 씻어냈으니, 이 물 역시 더럽혀졌네. 소에게도 물을 먹일 수 없지."

마음을 비웠다는 이들의 각축장에서 차지한 최고의 자리에서 마음을 비우지 않은 싸움을 보면서 비움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숲으로 들어가 잠시라도 견뎌내고 싶다. 소에게도 물을 먹이지 않은 지조의 사람은 정녕 우리 곁에 없는지. 스스로 못난 노태우라고 칭한 노태우씨는 이제라도 자신의 못남과 그 업보의 사슬을 벗는 길은 차가운 감옥에서 마음을 비운 뼈값은 참회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 들여야지, 과거의 환상에 사로잡혀 궁지를 벗어나려고 코먹은 소리를 해서 안된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변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결단으로 비참한 지금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꾸어놓으면 한다. 이렇게 비워냄이 없으면 아무리 쌓아두고 몽치두더리다 이 겨울의 추위를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도 각 <시자담 주지>

한점 의혹없는 조사

이제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에 불려 조사도 받고 있으니 행위의 전말은 밝혀지겠지만, 이 또한 한점 의혹도 없이 날날이 파헤쳐져 국민의 바람을 충족할지는 미지수다. 저들이 상투적으로 남용하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적당한 선에서 사건은 미봉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얽혀있는 제반의 상황은 이러한 결과를 유도하기에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심판하는 자나 심판을 받는 자 모두 공히 이러한 부정판 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역사의 행간에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고, 궁극적으로 이런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런 후회를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현대만평



자! 이제 마음을 비우고 입을 열거나...

불교방송 정상화에 즈음하여

불교방송인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교법을 이땅 구석구석까지 전파매체를 통하여 호포함으로써 정도실현의 향도적 역할을 담당함에 있습니다. 1990년 5월 1일 2,000만 전 불교도의 염원과 원력의 총화로 출범한 우리 불교방송은 그간 5개 여 성상을 지내오는 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왔습니다. 감동 감화를 주는 큰스님들의 설법과 질 높은 교리 방송은 신행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었고 양질의 교양프로그램은 국민의 정서를 순화하며 종교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던 것입니다. 특히 '무명을 밝히고'나 '거룩한 만남' 또는 각종 뉴스프로 등으로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불교의 자비정신을 생활 속에 구현함은 물론 불교적 의지를 세상에 친명하는 데 남다른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지방국을 4개소나 설립 또는 추진하여 전국을 가청권으로 묶기 위해 지금도 우리 불교방송의 130여 임직원 모두는 정성을 다해, 좋은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말은바 업무에 매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전 종도들의 깊은 관심과 물심양면의 큰 배려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방송국 문제로 인하여 교단 안팎에서 많은 비판과 질책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재단법인 불교방송 이사회에서는 몇 번의 이사회를 개최하며 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고, 고심 속에 문제가 되었던 임직원을 사퇴케 하는 한편 역동적으로 방송프로그램

개편하는 등 제반 노력을 다해왔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스님들의 방송출연 금지 및 협찬금지 조치도 해제되고 이제 점진적으로 불교방송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해가고 있음은 오직 전 종도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10월 말까지 신입사장 선임 등 모든 업무를 종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업무상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여러 이사님들의 고견과 업무계획에 따라 조속한 시일 안에 이사회를 거쳐 모든 종도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경영 책임자인 사장을 선임하고 본인은 이사장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것임을 지상을 통해 밝히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불교방송은 제2의 창업을 하는 비장한 각오로, 신심을 바쳐 매사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아픔이 내일의 도약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뜨거운 관심과 물심양면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불은에 보답하는 자세로 어떤 난관도 극복할 것임을 밝힙니다.

불기 2539년 11월 1일

재단법인 불교방송 이사장 박종하 합장
사장 직무 대행